



정밀함의 예술을 향한 여정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한 정밀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브닝 행사에서 새로운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정밀함의 예술”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행사는 2019 년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건축물, 정밀한 장인 기술로 알려진 인상적인 도시인 교토에서 매뉴팩처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밀함의 예술, 두 번째 발상지

이번 행사는 정밀성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일본 제국의 옛 수도와 그랑 메종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시간을 표시하는 부품과 정교한 인디케이터를 포함한 무브먼트의 기술적 정밀성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장인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 180 가지의 전문 기술과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기술의 엄격한 작업 과정과 장인정신에 이르기까지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술 또한 이러한 소명과 도전에 부응하고자 디테일에 전념하는 극도의 엄격함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열정

이날 저녁에는 일본의 인간국보 예술가인 후쿠다 키주(Kiju Fukuda)와 스다 켄지(Kenji Suda), 야마기시 카즈오(Kazuo Yamagishi)가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워치메이킹 기술과 예술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곁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서 특별히 방문한 두 명의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 및 에나멜 장인도 함께했습니다. 정밀한 워치메이킹 기술뿐만 아니라 에나멜링 기법(1999 년 매뉴팩처에 재도입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장식 기술)과 일본만의 특별한 자수 장식 및 상감 세공 기술과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진귀한 오브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게스트들은 예거 르쿨트르 시계와 같이 수시간 혹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진귀한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정밀성이 선사하는 성능과 아름다움

예거 르쿨트르는 이날 저녁에 열린 특별 시사회를 통해 탁월한 정밀성으로 완성된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인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을 공개했습니다. 저명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마스터피스 차임 시계 분야에서 선보인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혁신적인 공 시스템은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계에서는 보기 드문 풍부하고 선명한 음향을 통해 앤티크 차임 포켓 위치의 이상적인 차임을 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하는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13.72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장착된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첨단 기술과 미니어처 장식 예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차세대 차임 기술을 보여줍니다. 네오클래식 스타일의 그레인 처리된 실버 다이얼과 반투명한 딥 블루 기요세 에나멜 다이얼로 출시되는 두 가지 버전의 시계를 통해 이러한 기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과 역사의 도시인 교토의 밤을 비추는 밝은 조명 아래,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이래 계승되어온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경의를 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오브제와 유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일본의 상징적인 도시인 교토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온 철저한 장인정신은 이러한 기술과 미학의 정밀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

"고유의 세련된 분위기와 전통 유산으로 잘 알려진 교토에서 정밀함의 예술에 대한 헌사를 담은 시계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밀성은 자연과 건축, 문화, 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각본이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과도 같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정밀성은 1833년부터 발레 드 주의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전문 기술에 전념해온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와 교토와의 공통분모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밀함의 예술을 주제로 하여 디테일에 집중하고, 예거 르쿨트르 시계 컬렉션과 같은 예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전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초기부터 정밀성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며 정교함과 미학적 노하우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였습니다. 1833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 산업을 선도하는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틀모스 등 그랑 메종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전례 없는 타임피스를 통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